



2026. 7. 14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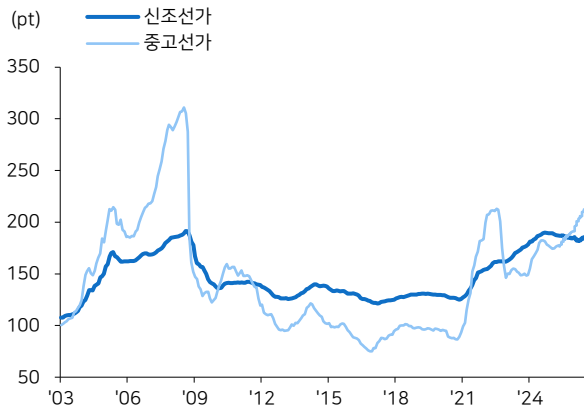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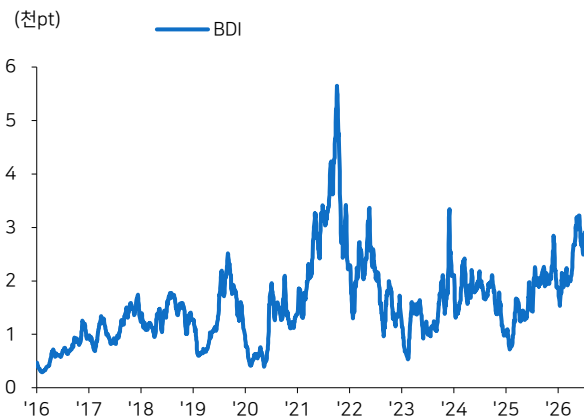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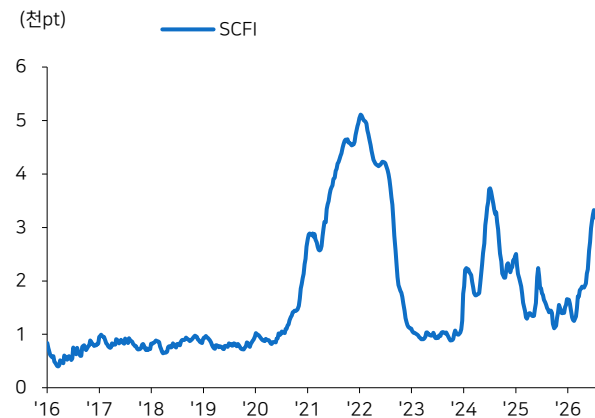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44.0p (+3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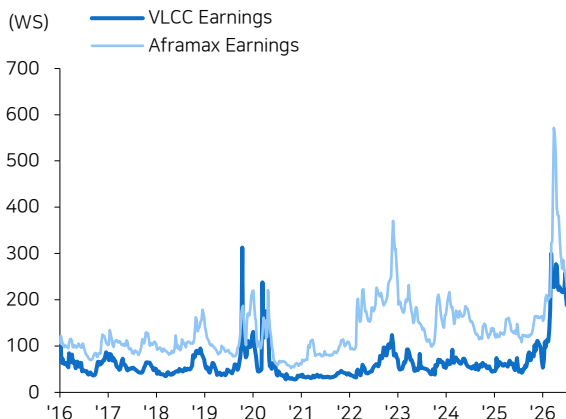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184.8(-142.1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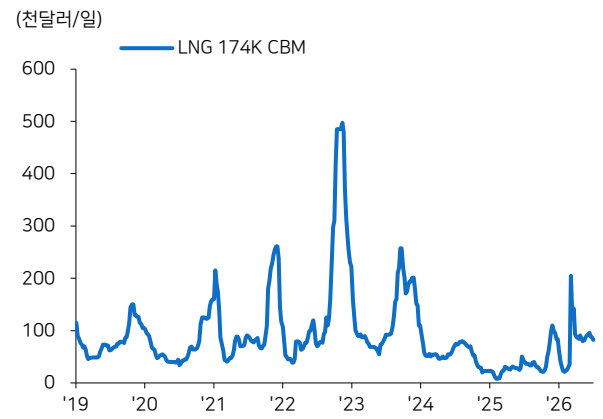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17.6WS (+29.7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4.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캐나다선 한배, 태국선 맞대결...HD 현대중·한화오션 '동남아 2 차전' (데일리안)

<https://zrr.kr/kpbb0q>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이 추진하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각각 독자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인다고 보도됨. 태국 해군은 함정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비율, 장기 군수 지원 등 자국 조선 산업 육성 방안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고 있어, 두 기업은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높은 현지 생산 비율과 다양한 수상함 수출 경험을 통한 가격·납기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태국 해군 기함인 '푸미폰 아둔야뎃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던 기존 협력 관계와 운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알려짐.

45 조 '슈퍼사이클'에도 노사 갈등 심화...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 (아시아타임즈)

<https://zrr.kr/RcLtrJ>

국내 조선업이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음에도 원·하청 임금 격차와 만성적인 인력난 등 현장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사상 처음으로 출범한다고 보도됨. 이번 협의체에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여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설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협의체는 원·하청 이종구조 개선, 숙련 인력 확보, 산업 안전 강화 등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선업 호황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협력사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구조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으로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中 Ningbo와 카사블랑카 조선소 쟁탈전 (세계일보)

<https://zrr.kr/kNJfa3>

HD현대중공업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의 향후 30년간 독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Ningbo 신리 조선 등과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모로코 현지 기업 및 튀르키예 조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력과 해외 운영 노하우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는 카사블랑카 조선소를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종합 조선 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전해짐. 카사블랑카 항구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요충지로, HD현대중공업이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유럽의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현지 생산 거점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EMF charts out \$400m VLAC newbuildings to trading giant Trafigura (TradeWinds)

<https://zrr.kr/HchBf3>

덴마크 해운 투자사인 European Maritime Finance(EMF)가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8만 8,000cbm급 VLAC/VLGC 3척에 대해 글로벌 원자재 거래 기업 Trafigura와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첫 번째 선박은 12개월 고정 용선료로, 나머지 두 척은 발틱거래소 지수와 연동된 변동 용선료 조건으로 운용될 계획이라고 전해짐. 이 선박들은 LPG와 암모니아를 모두 운송할 수 있는 모델로, Trafigura는 암모니아 운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EU increased Russian LNG imports in first-half 2026 ahead of incoming ban (TradeWinds)

<https://zrr.kr/5dfEkd>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상반기 러시아산 LNG의 EU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보도됨. 러시아 Yamal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물량 중 97% 이상이 EU 항구로 전달되었으며, EU가 러시아의 전략적 에너지 프로젝트를 사실상 지탱하고 있다고 알려짐. EU는 2027년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및 관련 해운 서비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나, 러시아는 북극권 항로와 채빙 기능을 갖춘 선단을 활용해 유럽으로의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가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해짐.

Petronas signs another LNG supply deal with Japanese player (Upstream)

<https://zrr.kr/emA8eE>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nas가 일본 Shizuoka Gas와 2032년부터 2038년까지 7년간 총 84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신규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양사의 30년 협력 관계를 기념하는 동시에, Petronas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짐. 양사는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탄소 중립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Petronas가 일본 Jera와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아시아 지역 내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